

부모됨의 가치와 행복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남희 소장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40만 6,300명의 아이가 출생했다고 한다. 이는 2015년에 비해서도 3만 2,100명(7.3%)이 감소한 것이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고 한다. 이런 수치를 모르더라도 주변에서 미혼의 30~40대 자녀가 있는 가구나 아이가 없는 부부를 흔하게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만혼과 저출산이 보편적 현상인 것을 느끼게 된다. 이리다 한 십년쯤 지나면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에서 20~50대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64.5%만이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필요성을 좀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71.7%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 미혼인 259명 중에서는 46.3%만이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 미혼자들에게 결혼, 나아가 자녀 출산의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산에 대한 미혼자들의 응답이 더 부정적이어서 향후 출산률 회복의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이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연구 결과,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여가의 부족, 정서심리적 부담, 사회활동 지장 우려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애 과업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부모가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닌 ‘부담’으로 여겨지게 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 연구’에서 ‘자녀가 없어도 된다’거나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이’ 자체가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또, 부모됨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중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가 4점 만점에 3.3점으로 가장 높아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크어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인들은 여전히 ‘부모됨’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며 부모에게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임에도 부모에게는 무엇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오묘한 면이 있다.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가치 때문에 부모됨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정책이 부모됨의 가치는 잇은 채 부모됨의 부담 절감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출산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제공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수많은 재정을 투입 하였으나, 현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부모됨의 가치와 노고를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함께 돕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즉 부모됨은 결코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라는 정책 또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자녀를 낳아주는 부모를 몰심양면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 준다. 그러나, 일면 부모됨의 어려움 뿐 아니라 부모됨의 행복과 자부심조차 느낄 수 없게 할 수 있는 위험성과 양육의 책임이 부모 보다 국가에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국가가 부모됨을 대신해 준다는 착각을 버리고, 부모가 자녀 양육의 행복을 느끼고 부모됨을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다. 올바른 부모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무리 없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됨이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출산과 자녀 양육, 부모됨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노력을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자녀를 낳고 키울만한 사회임을 믿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나의 아이가 단지 우리 가족의 아이일 뿐 아니라 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자라나며 나 또한 소중한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부모로서 노고와 어려움을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면 부모되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